

Analysis on translation patterns between **翻譯小學**(Beonyeok-Sohak) and **小學諺解**(Sohak-Eonhae) : Focusing on the parts that are not translated

著者名(英)	Hyunjin Jo
journal or publication title	Annual Journal of Korean Linguistics
volume	10
page range	105-162
year	2014-04-01
URL	http://id.nii.ac.jp/1092/00001135/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의 翻譯 樣相 研究

- 번역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

조현진(趙賢眞)

니가타현립대학 국제지역학부 국제지역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 서론

『小學』을 底本으로 1518년에 간행된 『翻譯小學』과 1588년에 간행된 『小學諺解』는 70년이라는 차이를 두고 두 번 諺解되었다. 『翻譯小學』과 『小學諺解』는 동일 原文의 漢字를 토대로 언해하였는데 두 문헌에서 다른 어휘를 사용하거나 漢字의 번역 순서의 차이에 있거나 원문의 漢字를 생략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번역 樣相이 相異하게 나타난다.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의 現存本 全卷 중 동일 原文과 언해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 대응되는 부분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翻譯小學(1518)	小學諺解(1588)
卷 三 (3b~47b)	卷 二 (38a~78a)
卷 四 (1a~28b)	卷 三 (1a~25b)
卷 六 (1b~37a)	卷 五 (1b~34b)
卷 七 (1a~50b)	卷 五 (35a~82a)
卷 八 (1a~43a)	卷 五 (82a~121a)
卷 九 (1a~108b)	卷 六 (1a~101a)
卷 十 (1b~35b)	卷 六 (101b~133a)

<표1.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의 동일 原文과 諺解文 대응 부분>

본고에서는 상이하게 나타나는 두 문헌의 다양한 번역 樣相 중에서 동일 原文을 기준으로 언해하였을 때 번역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는 경우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고 다시 名詞類, 動詞類, 冠形詞, 副詞類로 세분하는 방법으로 번역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2.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는 경우

두 문헌을 대비해 보면 동일 원문의 漢字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名詞類, 動詞類, 冠形詞, 副詞類, 節로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1 번역되지 않는 名詞類¹⁾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는 名詞類에는 名詞, 代名詞, 名詞句, 依存名詞가 있다.

2.1.1 번역되지 않는 名詞

<1> 俗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俗’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시속’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a. 다 기운 짓고 어디다 일콘느니(俗呼爲氣義라) <翻譯小6:25b>
b. 시속이 일콧라 기운 짓고 올타 흐느 디라(俗呼爲氣義라) <小學5:23b>

<2> 裏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裏’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가온디’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a. 일로브터 공부를 하시니(自這裏做工夫하시니) <翻譯小6:35b>
b. 이 가온디로브터 工夫를 하시니(自這裏做工夫하시니) <小學5:33a>

<3> 口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口’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입’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a. 밀로 막고(以蠟閉口하고) <翻譯小7:14b>
b. 밀로써 입을 막고(以蠟閉口하고) <小學5:48a>

<4> 曹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曹’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물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a. 너희는 오직 상네 사람 외다 ㅎ는 ㅁ슴으로 내 모를 외다 ㅎ며(爾曹는 但常以責人之 心으로 責己ㅎ며) <翻譯小8:13b>
b. 너희 물이는 다문 상네 사람 외다 ㅎ는 ㅁ슴으로써 몸을 외다 ㅎ고(爾曹는 但常以責人之心으로 責己ㅎ고) <小學5:93a~93b>

<5> 上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上’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上’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a. 혹 잇다감 관디 아니ㅎ더시니(上이 或時不冠이러시니) <翻譯小9:41b>
b. 上이 或 잇다감 冠 쓰디 아니ㅎ샤디(上이 或時不冠ㅎ샤디) <小學6:38a>

<6> 義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義’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의리’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 a. 혼자 달오미 몬홀 거시니(義無獨殊 | 니) <翻譯小9:48a>
b. 의리에 혼자 달리 흠이 업슬 거시니(義無獨殊 | 니) <小學6:44a>

<7> 命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命’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命’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7) a. 브즈런흙과 삼감과 온화흙과는 흠마 듣즈왓거니와(勤謹和는 既聞命矣 어니와) <翻小9:53a>
 b. 브즈런흙과 삼감과 和흙은 이의 命을 듣즈왓거니와(勤謹和는 既聞命矣 어니와) <小學6:48b>

<8> 丁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丁’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스나히’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8) a. 그 집 구실을 영히 덜라 하시니라(永錫其家丁役하시다) <翻小9:67a>
 b. 영영히 그 집 스나히 구실을 더르시다(永錫其家丁役하시다) <小學6:61b>

<9> 人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人’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사람’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9) a. 디답호디 아래(對曰昔에 人이) <翻小10:1b>
 b. 디답하야 곶오디 네 사람이(對曰昔에 人이) <小學6:101b>

<10> 婢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婢’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종’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0) a. 므득 담거늘(婢 | 遽收之러니) <翻小10:2b~3a>
 b. 종이 므득 거두더니(婢 | 遽收之러니) <小學6:102b>

<11> 共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共’이 『翻譯小學』

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훈가지’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a. 더브러 말ᄃᆞ여 보고(遂與共言ᄃᆞ고) <翻小10:6b>

b. 드되여 더브러 훈가지로 말ᄃᆞ고(遂與共言ᄃᆞ고) <小學6:106a>

<12> 吏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吏’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 ‘관원’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a. 侃의 본성이 총명ᄃᆞ고 민달ᄃᆞ야 소심을 브즈러니 ᄃᆞ며(侃이 性聰敏ᄃᆞ야 勤於吏職ᄃᆞ며) <翻小10:8a>

b. 侃의 性이 총명ᄃᆞ고 민첩ᄃᆞ야 관원의 소임에 브즈런ᄃᆞ며(侃性이 聰敏ᄃᆞ야 勤於吏職ᄃᆞ며) <小學6:107b>

2.1.2 번역되지 않는 代名詞

<1> 斯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斯’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대명사 ‘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a. 정스호미 님게 디디 아니ᄃᆞ리라(斯可爲政이 不在人後矣리라) <翻小6:35a>

b. 이 可히 정스흠이 사람의 뒤해 잇디 아니ᄃᆞ리라(斯可爲政이 不在人後矣리 라) <小學5:32b>

<2> 夫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夫’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대명사 ‘그’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a. 씨곰 글 닐거 빅호며 무러 호문(夫所以讀書學問_는) <翻小8:25a>
 b. 그 씨 곰 닐거 빅호며 문_는 바_는(夫所以讀書學問_은) <小學5:104a>

<3> 公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公’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대명사 ‘公’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a. 상해 ㄱㄹ치샤디 일일마다(然이나 敎公호디 事事物) <翻小9:2a>
 b. 그러나 공을 ㄱㄹ추디 므스를(然이나 敎公호디 事事物) <小學6:1b>

2.1.3 번역되지 않는 名詞句

<1> 要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要’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구 ‘중요로운 ㄷ’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a. 유서흔 디 ㄱ마니 브트면(匿近權要 | 면) <翻小6:19b~20a>
 b. 권세와 중요한 디 ㄱ마니 갓가이 ㅎ야(匿近權要 ㅎ야) <小學5:18b>

<2> 居…者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居…者’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구 ‘인_는 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a. 플릿 아버의 거상에 大祥 저네(凡居父母之喪者_는 大祥之前_엔) <翻小7:18a>
 b. 플릿 父母_ㅅ 거상에 인_는 이_는 大祥 전의(凡居父母之喪者_는 大祥之前_에) <小學5:51a>

<3> 所謂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所謂’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구 ‘닐은 바’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a. 十王을 보니 업스뇨(見所謂十王者耶오) <翻小7:22b>
 b. 닐은 밧 十王[중의 니르느 디옥 ㅁ음 안 꺾것들허라]을 보니 업스뇨
 (見所謂十王者耶오) <小學5:55b>

<4> 卑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卑’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명사구 ‘느즌 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a. 저믄 사름이 레절이 꺾디 아니흐니 잇거든(卑幼禮節이 或有不備어든)
 <翻小9:97a>
 b. 느즌 이며 점은의 禮節이 或 꺾디 안임이 잇거든(卑幼禮節이 或有不備어든) <小學6:90a>

2.1.4 번역되지 않는 依存名詞

<1> 所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所’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의존명사 ‘바’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

- (1) a. 물읏 사르미 사름 ㄸ외엿논(凡人之所以爲人者ㄴ) <翻小4:9b>
 b. 물읏 사름의 ㅁ 사름 되연ㄴ 바ㄴ(凡人之所以爲人者ㄴ) <小學3:9a>
 c. 네 닐은 버믐 그리다가 일오디 묻흐면 도르혀 가히 곤흐리라(所謂畫虎不成 | 면 反類狗子也 | 니라) <翻小6:15a>
 d. 닐은 바 범을 그려 이디 묻흐면 도로혀 개 곤흠이니라(所謂畫虎不成 이면 反類狗子也 | 니라) <小學5:14a>
 e. 顏淵이 이 말스플 일사마 혼 디라 성신에 나사가니(顏淵이 事斯語 | 라

所以進於聖人호니) <翻小8:8b>

f. 顏淵이 이 말씀을 일삼아 호니 써 聖人에 나아간 배니(顏淵이 事斯語호니 所以進於聖人이니) <小學5:88b>

g. 사는 집이 허러 바람과 벼들 마리우디 못호거늘(所居屋敗호야 不蔽風日이어늘) <翻小9:33a>

h. 사는 밧 집이 허러더 바람과 벼들 마리우디 못호거늘(所居屋敗호야 不蔽風日이어늘) <小學6:30a>

i. 친호은 사름이 외다 호야 닐오디(所親이 或規之호야 曰) <翻小10:30a~30b>

j. 친호 밧 사름이 或 규풍호야 곁오디(所親이 或規之曰) <小學6:128b>

2.2 번역되지 않는 動詞類³⁾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는 動詞類에는 動作動詞, 動作動詞句, 狀態動詞가 있다.

2.2.1 번역되지 않는 動作動詞

<1> 命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命’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命호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

(1) a. 마로디 가 너 도올 사름물 마자 와(命之曰往迎爾相호야) <翻小3:12b>

b. 命호야 곁오디 가 너 도올 이를 마자(命之曰往迎爾相호야) <小學2:46a>

c. 안즈라 아니호거시든(不命之坐ㅣ어든) <翻小9:2b>

d. 命호야 안즈라 아니커든(不命之坐ㅣ어든) <小學6:2a>

e. 제의 술 먹던 그릇과 저희 두던 상늑 장귀들홀 아사(乃命取其酒器菐博之具호야) <翻小10:10a>

f. 命호야 그 술그릇과 상늑 장귀 귀구를 가져다가(乃命取其酒器菐博之具호야) <小學6:109a>

<2> 與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與’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더블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

- (2) a. 말슴 아니커시든 썰리 물러갈 디니라(不與之言則趨而退니라) <翻小3:26a>
- b. 더블어 말슴흐디 아니커시든 썰리 거러 므를 디니라(不與之言則趨而退니라) <小學2:58b>
- c. 서르 머거 취흐며 빅블오믈 날포흐야(相與飲啜흐야 醉飽連日흐야) <翻小7:17a>
- d. 서르 더블어 머거 醉흐며 빅블움을 날포흐고(相與飲啜흐야 醉飽連日흐고) <小學5:50a>
- e. 하품엿 빅성으로 혼가지라(與下民一致라) <翻小8:12b>
- f. 하품 빅성으로 더블어 혼가지라(與下民一致라) <小學5:92b>
- g. 서르 正혼 學業을 講論흐야 불골 디니라(相與講明正學이니라) <翻小9:13a>
- h. 서르 더블어 正혼 學을 강론흐야 불키게 홀 디니라(相與講明正學이니라) <小學6:11b>
- i. 이런 거슨 모로매 화란이 좇차 잇느니라 必여늘(必與禍相隨쉬라 혼대) <翻小10:16a>
- j. 반드시 화란으로 더브러 서르 조츠리라 혼대(必與禍相隨ㅣ라 혼대) <小學6:115a>

<3> 肯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肯’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즐기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

- (1) a. 구펴 낙죽호려 하디 아니하야 그 뵈 불휘 밋양 이셔(不肯屈下하야 病根常在하야) <翻小6:3a>
 b. 즐겨 굴복하야 낙초디 아니하야 病 쏘휘 상해 이셔(不肯屈下하야 病根常在하야) <小學5:3a>
 c. 네 내 어미를 효양홀다(汝 | 肯養吾母乎아) <翻小9:55a>
 d. 네 즐겨 내 어미를 효양홀다(汝 | 肯養吾母乎아) <小學6:50b>

<4> 玩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玩’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완상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a. 즈데이 물읏 온가짓 맛드려 하논 이리(子弟凡百玩好 |) <翻小6:6a~6b>
 b. 子弟의 물읏 온가짓 완상하야 도히 너기논 거시(子弟凡百玩好 |) <小學5:6a>

<5> 得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得’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得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a. 伯高논 본받다가 못하야도(效伯高不得 | 라두) <翻小6:15a>
 b. 伯高를 효측하야 득디 못하야도(效伯高不得이라두) <小學5:14a>
 c. 季良을 본받다가 못하면(效季良不得하면) <翻小6:15a>
 d. 季良을 효측하야 득디 못하면(效季良不得하면) <小學5:14a>

<6> 繫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繫’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묶이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 a. 잇다잠 가도이매 빠디느니(往往陷囚繫호느니) <飜小6:25b>
 b. 잇다잠 가도여 락임애 싸디느니(往往陷囚繫호느니) <小學5:24a>

<7> 知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知’가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알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7) a. 어디디 못호니는 凶이라 닐오미니라(知…不善也者는 凶之謂也 | 나라) <飜小6:29a~29b>
 b. 어디디 못홈이란 거슨 凶홈을 닐옴인 줄을 알 디니라(知…不善也者는 凶之謂也 | 나라) <小學5:27a>

<8> 爲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爲’가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위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⁷⁾

- (8) a. 혹 公服 지서 니퍼 회롱호는 디라(或爲之製公服而弄之라) <飜小7:9b>
 b. 或 위호야 公服[복두 관티라]을 지어서 회롱호는 디라(或爲之製公服而弄之라) <小學5:42b>
 c. 몬져 호여딘 디 잇거든 즉시에 슈보호야 고틸 거시니(先有缺壞어든 就爲補治니) <飜小8:38b>
 d. 몬져 호여딘 디 잇거든 즉제 위호야 슈보호야 다스릴 디니(先有缺壞어든 就爲補治니) <小學5:116b>
 e. 반드시 친히 불 디더 죽을 글히더니(必親爲然火호야 煮粥호더니) <飜小9:79a>
 f. 반드시 친히 위호야 불 디더 粥을 글히더니(必親爲然火煮粥호더니) <小學6:73a>
 g. 다 사회를 곶히오(皆爲選婿호야) <飜小10:15a>

h. 다 위하야 사회를 골히여(皆爲選婿하야) <小學6:114a>

<9> 議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議’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의론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a. 막술히 외다 하야(鄉黨이 以爲貶議하야) <翻小7:20b>

b. 막술히 써 외다 의론함을 삼으니(鄉黨이 以爲貶議하니) <小學5:53b>

<10> 曰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曰’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골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⁸⁾

(10) a. 청렴함과 조심함과 브즈런함괘니(曰淸曰愼曰勤이니) <翻小7:27a>

b. 골은 청렴함과 골은 삼가기와 골은 브즈런함이니(曰淸曰愼曰勤이니)
<小學5:59b>

c. 상위 물러와 사름드려 니르샤디 심홀서 汲黯의 어림이여(上이 退謂人曰甚矣라 汲黯之戇也ㅣ여) <翻小9:38b>

d. 上이 물러와 사름드려 닐러 골으샤디甚하다 汲黯의 어림이여(上이 退謂人曰甚矣라 汲黯之戇也ㅣ여) <小學6:35b>

e. 상해 사름드려 닐오디(常語人曰) <翻小10:9b>

f. 상해 사름드려 닐어 골오디(常語人曰) <小學6:109a>

<11> 猷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猷’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계교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a. 하느 이리 업스리니(無所猷爲니) <翻小8:12b>

b. 계교하야 하느 배 업서(無所猷爲하야) <小學5:92b>

<12> 從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從’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붙좃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a. 엇디 아당하여 뜯을 받조아(寧令從諛承意하야) <翻譯小9:39b>

b. 엇디 히여곰 붙조차 아당하며 뜯을 바다(寧令從諛承意하야) <小學6:36a>

<13> 請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請’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請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a. 高允의 주글 죄란 노하쇼셔(請赦其死하쇼셔) <翻譯小9:45b>

b. 請컨댄 그 죽음을 赦하쇼셔(請赦其死하쇼셔) <小學6:41b>

<14> 嘆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嘆’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차탄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 a. 太子 | 양궤를 고타 가지시고 어디다 일궤라시더라(太子 | 動容稱嘆하시다) <翻譯小9:48b>

b. 太子 | 용모를 고타 일궤라 차탄하더라(太子 | 動容稱嘆하더라) <小學6:44a>

<15> 詔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詔’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詔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 a. 그 문의 정표호고(詔旌表其門閭호시고) <翻小9:66b~67a>

b. 詔호샤 그 門과 只을호 旌表[이제 홍문 서기 테엿 일이라]호시고(詔旌表其門閭호시고) <小學6:61b>

<16> 笑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笑’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웃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 a. 도로 모다 말호더라(還共談笑호더라) <翻小9:75a>

b. 도로 와 혼가지로 말호며 웃더라(還共談笑호더라) <小學6:69b>

<17> 顧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顧’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도라보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 a. 이제 누의 나히 늙고 나도 늙그니(顧今姊ㅣ 年老호며 勣亦老호니) <翻小9:79a>

b. 도라보건댄 이제 누의 나히 늙고 勣이 또 늙그니(顧今에 姊ㅣ 年老호고 勣이 亦老호니) <小學6:73a>

c. 내 넷 받티며 집이 이시니(顧自有舊田廬호니) <翻小9:89a>

d. 도라보건댄 스스로 넷 받과 집이 이시니(顧自有舊田廬호니) <小學6:82b>

<18> 望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望’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 ‘원망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8) a. 서르 외다 ᄃ야 인ᄃ여(由…更相責望ᄃ야) <飜小9:97a>
 b. 다시곰 설으 외다 ᄃ야 원망흙을 말피삼아(由…更相責望ᄃ야) <小學6:90a>

2.2.2 번역되지 않는 動作動詞句

<1> 念慈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念慈’가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구 ‘어엿비 너기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a. 어마니피 스랑ᄃ샤미 세 고대 니르히 올ᄃ시던 주를 싱각ᄃ야(念慈母之愛 | 至於三遷ᄃ야) <飜小6:10a>
 b. 어엿비 너기시는 엄의 스랑흙이 세 적 올몸에 니르신 줄을 싱각ᄃ야 (念慈母之愛 | 至於三遷ᄃ야) <小學5:9b>

<2> 恬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恬’이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구 ‘므던히 너기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a. 쯔 늬도 고이히 아니 너기느니(人亦恬不爲怪ᄃ느니) <飜小7:16a>
 b. 늬도 쯔 므던히 너겨 괴이히 너기디 아니ᄃ느니(人亦恬不爲怪ᄃ느니) <小學5:49a>

<3> 導輜車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導輜車’가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구 ‘상여를 인도ᄃ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a. 풍류ᄃ고 우리 조차 가며(以樂으로 導輜車而號泣隨之ᄃ며) <飜小7:17a>
 b. 풍뉴로써 상여를 인도ᄃ고 불으지저 울오 조차 가며(以樂導輜車而號

泣隨之ᄃ며) <小學5:50a>

<4> 以爲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以爲’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구 ‘씨 ᄃ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a. 大概ᄃ 學校ᄃ란 거슨 禮義로 서르 몬저 ᄃ 씨히어ᄃ(大槩는 以爲學校는 禮義相先之地어ᄃ) <翻小9:16a~16b>

b. 大概ᄃ 씨 호되 學校ᄃ는 禮義로 서르 몬저 ᄃ 씨히어ᄃ(大槩는 以爲學校는 禮義相先之地어ᄃ) <小學6:14b>

<5> 皆云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皆云’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구 ‘다 ᄃ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a. 浩의 ᄃ은 이리라 ᄃ며 니르더이다(皆云浩所爲라 ᄃ더이다) <翻小9:46a>

b. 다 ᄃ오되 浩의 ᄃ 배라 ᄃ덩이다(皆云浩所爲라 ᄃ더이다) <小學6:42a>

<6> 遵…誠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遵…誠’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동작동사구 ‘경계ᄃ을 좃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a. 玄暉 ᄃ르치신 일을 받즈와(玄暉ᄃ 遵奉敎誠ᄃ야) <翻小9:52a>

b. 玄暉ᄃ ᄃ르쳐 경계ᄃ을 조차 받즈와(玄暉ᄃ 遵奉敎誠ᄃ야) <小學6:47b>

2.2.3 번역되지 않는 狀態動詞

<1> 如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如’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상태동사 ‘곧듯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a. 네 詩 三百篇은 다 넷 사름미 지스니(如古詩三百篇은 皆古人作之호니)
<翻譯小6:7b>
b. 네 詩 三百篇 곧트니는 다 넷 사름이 지으니(如古詩三百篇은 皆古人
이 作之호니) <小學5:7a>

<2> 如此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如此’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상태동사 ‘이러듯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a. 어딘 사름 도의디 아니호미 오히려 可커니와(如此而不爲君子는 猶可也
| 어니와) <翻譯小6:32b>
b. 이러듯호고 君子 | 되디 아니홈은 오히려 可커니와(如此而不爲君子는
猶可也 | 어니와) <小學5:30b>
c. 어딘 사름미 도의디 아니호미 오히려 可커니와(如此而不爲君子는
猶可也 | 어니와) <翻譯小6:32b~33a>
d. 이러듯호고 君子 | 되디 아니홈은 오히려 可커니와(如此而不爲君子는
猶可也 | 어니와) <小學5:30b>

<3> 切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切’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상태동사 ‘切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a. 음식과 남진 겨집 스이로써 중요를 사물 디니(以飲食男女로 爲切要 |

니) <飜小6:35a>

- b. 飮食과 남진 거집으로써 切한 重要를 삼을 디니(以飮食男女로 爲切要
| 니) <小學5:33a>

<4> 居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居’가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상태동사 ‘이시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a. 상해 비록 ㅁ장 더운 저기라도 부모와 일우신의 곁티 이셔논(平居에 雖甚熱하나 在父母長者之側하야) <飜小9:2b>
b. 상해 이실 제 비록 심히 더우나 父母와 일우신 곁티 이셔(平居에 雖甚熱하나 在父母長者之側하야) <小學6:2b>

<5> 宜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宜’가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상태동사 ‘맞당하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a. 모를 가비여이 몬하실 거시이다 하여놀(不宜自輕이니이다) <飜小10:4a>
b. 스스로 가비야이 흠이 맞당티 아니하니이다(不宜自輕이니이다) <小學6:104a>

2.3 번역되지 않는 冠形詞

<1> 其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其’가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관형사 ‘그’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⁹⁾

- (1) a. 아름다운 일란 받즈와 順從하습고(將順其美하며) <飜小3:8a>
b. 그 아름다운 일란 받즈와 順종하고(將順其美하고) <小學2:42b>

- c. 宗廟 | 며 朝廷에 거샤느(其在宗廟朝廷호샤느) <翻小4:15b>
 d. 그 宗廟 | 며 朝廷에 거샤느(其在宗廟朝廷호샤느) <小學3:14a>
- e. 쯔 ㅁ로되 어딘 이를 니르며(又曰言其所善호며) <翻小6:33b>
 f. 쯔 ㄱ로되 그 어딘 바를 니르며(又曰言其所善호며) <小學5:31a>
- g. 죽손애 니르러 쯔 세세로 강논호니(至其子孫호야 亦世講之호니) <翻小7:46b>
 h. 그 子孫애 니르러 쯔 세세로 강구호니(至其子孫호야 亦世講之호니) <小學5:78a>
- i. 넷 사르미 온공호고 검박호며 존절호야 쓰며(欲其觀古人之恭儉節用호야) <翻小8:26b>
 j. 그 넷 사름의 온공호고 검박호야 쓰기를 존절호며(欲其觀古人之恭儉節用호며) <小學5:105b>
- k. 등을 문져 니르되(拊其背曰) <翻小9:80a>
 l. 그 등을 문져 ㄱ로되(拊其背曰) <小學6:73b>
- m. 우헛 사름 섬기며 사름 덕접호기를(其事上遇人애) <翻小10:21a>
 n. 그 우헛 섬기며 사름을 덕접호애(其事上遇人애) <小學6:119b>

<2> 是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是’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관형사 ‘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 (2) a. 어니 ㅁ장 어리니의 호논 이린고 호야(何者 | 是下愚所爲之事호야) <翻小6:8b>
 b. 어니 이 ㅁ장 어린 이의 호논 바 일린고 호야(何者 | 是下愚所爲之事호야) <小學5:8a>
- c. 縣令은 ㅁ을 위두 관워니니(令은 是邑之長이니) <翻小7:25b>
 d. 현령은 이 고을회 웃듬이니(令은 是邑之長이니) <小學5:58a>

- e. 비로소 공효를 볼 거시니 모로매 누를 조차 빙화 날거(始見功이니 須是從人授讀하야) <翻小8:35a>
- f. 비로소 공효를 볼 거시니 모름이 이 사람을 조차 막쳐든 넓어(始見功이니 須是從人授讀하야) <小學5:113b>
- g. 이는 도흔 기별이어니와(此是好消息이어니와) <翻小9:50b>
- h. 이는 이 도흔 기별이어니와(此는 是好消息이어니와) <小學6:46b>
- i. 이리 호미 막습 자보물 빙호미니라(卽此 | 是學이니라) <翻小10:24a>
- j. 곧 이거시 이 學이니라(卽此 | 是學이니라) <小學6:122b>

<3> 諸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諸’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관형사 ‘모든’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¹⁾

- (3) a. 아줌이며 넷할미 남진으란(諸姑尊姑之夫란) <翻小9:80b>
b. 모든 아줌이며 넷할미 남편으란(諸姑尊姑之夫란) <小學6:74b>

2.4 번역되지 않는 副詞類¹²⁾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는 副詞類를 時間副詞, 性狀副詞, 樣態副詞, 接續副詞, 副詞語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4.1 번역되지 않는 時間副詞

<1> 將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將’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장쑷’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³⁾

- (1) a. 漢나라 昭烈이란 님금이 업스실 제(漢昭烈이 將終하실쑷) <翻小6:15b>
>

b. 漢昭烈[蜀漢 님금이라]이 장춧 죽을 제(漢昭烈이 將終애) <小學5:14b>
>

c. 王祥이 옷 바사브리고 어름 뵈고 어두려 흐더니(祥이 解衣호고 將剖冰求之러니) <翻小9:24b~25a>

d. 祥이 옷을 그르코 장춧 어름을 뵈고 어드라 흐더니(祥이 解衣호고 將剖冰求之러니) <小學6:22a>

<2> 遂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遂’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드디여’ 또는 ‘드디여’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2) a. 이우려 뜯드로미 되어사 궁흔 지비셔 슬허흔들(遂成枯落이어사 悲歎窮廬ㄱ들) <翻小6:17a>

b. 드디여 이우려 떠러덤이 되게사 궁흔 집의셔 슬탈흔들(遂成枯落이어사 悲歎窮廬ㄱ들) <小學5:16a>

c. 그 정흔 이를 업시 흐느니라(遂亡其正호느니라) <翻小8:9b>

d. 드디여 그 定흔 거슬 일르니라(遂亡其正호느니라) <小學5:90a>

e. 자바 나여 주기다(遂引出호야 斬之호다) <翻小9:25b>

f. 드디여 쓰어 내여 죽이다(遂引出斬之호다) <小學6:23b>

g. 더브러 말호여 보고(遂與共言호고) <翻小10:6b>

h. 드디여 더브러 혼가지로 말호고(遂與共言호고) <小學6:106a>

<3> 嘗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嘗’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일즉’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⁵⁾

(3) a. 아즌아들 果ㅣ 열즈와 벼슬 올오믈 求호대(從子果ㅣ 嘗求奏遷秩이어늘) <翻小6:21a>

- b. 아춘아들 果 | 일즉 연즈와 벼슬 올몸을 求호대(從子果 | 嘗求奏遷秩 이어늘) <小學5:19b>
- c. 빅브르 몬 자시더니(未嘗充也 | 러시니) <翻小7:47b>
- d. 일즉 츠디 몬호더니(未嘗充也 | 러시니) <小學5:79a>
- e. 내 락양 성신 글위를 닐글 제 식식기 공경호야 마조 안씨 아니흔 저 기 업스며(吾 | 每讀聖人書홀식 未嘗不肅敬對之호며) <翻小8:39b>
- f. 내 락양 聖人 글위를 닐글 제 일즉 엄숙히 공경호야 상디티 아니티 아니호며(吾 | 每讀聖人書에 未嘗不肅敬對之호며) <小學5:117b>
- g. 안히 드디 아니호며(未嘗入內호며) <翻小9:74b>
- h. 일즉 안해 드디 아니호며(未嘗入內호며) <小學6:69a>
- i. 입 밧괴 내디 아니호며(未嘗出諸口호며) <翻小10:23a>
- j. 일즉 입에 내디 아니호며(未嘗出諸口호며) <小學6:121b>

<4> 既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既’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이딴’ 또는 ‘이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 (4) a. 어버의 거상에 우제와 줄곡제 호고논(父母之喪에 既虞卒哭호야논) <翻小7:11a>
- b. 부모의 거상에 이딴 우제와 줄곡제 호야논(父母之喪에 既虞卒哭호야논) <小學5:44a>
- c. 孝芬의 아자비 振이 주근 후에(孝芬의 叔振이 既亡後에) <翻小9:94a>
- d. 孝芬의 아자비 振이 이딴 죽은 후에(孝芬의 叔振이 既亡後에) <小學6:87a>
- e. 게 니르러도 락양 나들 저기(既至호야 每出入에) <翻小10:12b>
- f. 이딴 니르러 락양 나들 적에(既至호야 每出入에) <小學6:111b>

<5> 輒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輒’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믄득’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a. 거지비 남지니 거상호엿는 디 가디 마를 디니라(婦人이 不得輒室男子喪次 | 니라) <翻譯小7:20a>
 b. 婦人이 시러곰 믄득 스나히 거상 님어 인논 곶애 니르디 아니홀 디니라(婦人이 不得輒室男子喪次 | 니라) <小學5:53a>

<6> 方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方’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뵤야호로’ 또는 ‘보야호로’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 a. 저머신 제 어버시 원소노로 형을 자브며 올흔소노로 아슬 잇들며(方其幼也애 父母 | 左提右挈호며) <翻譯小7:39a>
 b. 뵤야호로 그 저머신 제 父母 | 윈녀 곁턱로 잡고 올흔녀 곁턱로 들며(方其幼也애 父母 | 左提右挈호며) <小學5:70b>
 c. 믇양 울오 늑소소매 믄득 주겻다가 췌더니(每哭踊애 頓絕方蘇호더니) <翻譯小9:32b>
 d. 믇양 울며 늑소숨애 믄득 괴절호엿다가 보야호로 췌더라(每哭踊애 頓絕方蘇호더라) <小學6:29b>

<7> 卽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卽’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즉제’ 또는 ‘즉재’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7) a. 손으란 들오 늑촉란 늑죽기 호야(卽上手低面호야) <翻譯小7:41b>
 b. 즉제 손을 들고 논출 늑죽기 호야(卽上手低面호야) <小學5:72b>
 c. 텅의 올라 식어마니물 젓 머기더니(卽升堂호야 乳其姑호더니) <翻譯小>

9:29b>

d. 즉제 堂에 올라 그 식어마님을 젓 먹이니(卽升堂호야 乳其姑호니)
<小學6:26b>

e. 그 늙은 사람이 한가한 저귀(老人이 卽以閒暇時로) <翻小9:88b>

f. 늙은 사람이 즉제 閒暇한 시절로 써(老人이 卽以閒暇時로) <小學
6:82a>

<8> 却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却’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믄득’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a. 내 즉식두곤 경히 호야 심흔 사르문 원슈곤티 호야(却輕於己之子호야
甚者는 至若仇敵호야) <翻小7:43b>

b. 믄득 내 즉식에서 輕히 호야 甚흔 이는 원슈 곤툼에 니르러(却輕於己
之子호야 甚者는 至若仇敵호야) <小學5:75a>

<9> 已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已’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이미’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9) a. 네 어미도 쏘 일 주그니(汝母ㅣ 亦已早世호니) <翻小7:48a>

b. 네 어미 쏘 이미 일 죽으니(汝母ㅣ 亦已早世호니) <小學5:79a>

c. 쏘 남진의 가문이 죄 니버 주거 다 업스니(且夫家ㅣ 夷滅已盡호니)
<翻小9:63a>

d. 쏘 남진의 가문이 쓰러 죽어 이미 盡호여시니(且夫家ㅣ 夷滅已盡호
니) <小學6:58a>

e. 지빋 사르미 샤치호믈 빅환 디 오라(家人이 習奢已久ㅣ라) <翻小
10:31a>

f. 집사람이 샤치에 니건 디 이미 오란 디라(家人이 習奢已久ㅣ라) <小

<10> 常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常’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상네’, ‘常해’, ‘상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 (10) a. 모로매 저기 나뭇 거슬 두어(常須稍存羸餘호야) <翻小7:50b>
b. 상네 모로미 적이 남은 거슬 두어(常須稍存羸餘호야) <小學5:81b>
c. 내 그 마를 ㄹ장 구든 의론이라 호노라(吾常以爲確論이라 호노라)
<翻小9:51a>
d. 내 常해 써 확실흔 의론이라 호노라(吾 | 常以爲確論이라 호노라)
<小學6:46b>
e. 유여호더라(常有餘裕호더라) <翻小10:25b>
f. 상해 남아 넉넉함이 잇더라(常有餘裕 | 러라) <小學6:124a>

<11> 且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且’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아직’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1) a. 나저 바며 헤아려 슬피(日夜의 且自點檢호야) <翻小8:15a>
b. 나지며 밤의 아직 스스로 난난치 출화(日夜의 且自點檢호야) <小學5:94b>

<12> 便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便’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문득’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⁹⁾

- (12) a. 의심도원 어려운 디를 질정호야 무러(疑難處를 便質問호야) <翻小

8:35b>

- b. 의심되야 론난홀 곧을 문득 질정하야 무려(疑難處를 便質問하야)
<小學5:113b>

<13> 且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且’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거의’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3) a. 黯이 병이 하 병하연디 석 들이 츠더니(黯이 多病하야 病且滿三月이 러니) <翻譯小9:40b>
b. 黯이 病이 하 病하연디 거의 석 들이 츠거늘(黯이 多病하야 病且滿三月이어늘) <小學6:36b>

<14> 且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且’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장춧’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4) a. 그 남진이 부방 가게 하여 길 나갈 제(其夫 | 當行戌하야 且行時예)
<翻譯小9:55a>
b. 그 남진이 부방 가게 當하야 장춧 갈 적의(其夫 | 當行戌하야 且行時예) <小學6:50b>

<15> 始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始’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비르소’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5) a. 모던 병도 던염티 못하느 주를 알와라(始知疫癘之不能相染也 | 와라)
<翻譯小9:74a>
b. 비르소 녀역의 能히 서르 던염티 못하느 줄을 알와라(始知疫癘之不能相染也 | 와라) <小學6:68b>

<16> 更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便’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다시’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6) a. 서르 외다 ㅎ야 인ㅎ여(由…更相責望ㅎ야) <翻譯小9:97a>
b. 다시곰 설으 외다 ㅎ야 원망흠을 말피삼아(由…更相責望ㅎ야) <小學6:90a>

<17> 復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復’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다시’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7) a. 벼슬 아니ㅎ고(不復仕進ㅎ고) <翻譯小10:27a>
b. 다시 벼슬ㅎ디 아니ㅎ고(不復仕進ㅎ고) <小學6:125a>

<18> 卽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卽’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시간부사 ‘곧’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8) a. 쯔 상뉵에 혼인ㅎ리 잇느니 애왈브다(亦有乘喪卽嫁娶者ㅎ니 噫라) <翻譯小7:17a~17b>
b. 쯔 거상을 타서 곧 혼인홀 이 이시니 슬프다(亦有乘喪卽嫁娶者ㅎ니 噫라) <小學5:50a>

2.4.2 번역되지 않는 性狀副詞

<1> 唯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唯’가 『翻譯小學』

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오직’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 (1) a. 다드룬 디마다 주구물 닐외올 디니라(唯其所在則致死焉이니라) <翻譯小 3:43a>
b. 오직 그 인논 바애 곧 죽음을 닐월 디니라(唯其所在에 則致死焉이니라) <小學2:73b>
c. 불오디 떠덜가 저흠ㄴ티 흐노니(蹈之唯恐墜흐노니) <翻譯小6:27a>
d. 불옴애 오직 떠러덜가 두려흐노니(蹈之唯恐墜흐노니) <小學5:25a>
e. 衣服흐고 조심흐야 겨시더라(衣服唯謹흐더시다) <翻譯小9:2b>
f. 衣服을 오직 삼가더라(衣服唯謹흐더라) <小學6:2b>

<2> 只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只’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오직’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a. 주구매 니르러도 혼가지라(至死只依舊ㅣ니라) <翻譯小6:3a>
b. 죽음애 니르러도 오직 네 곧느니라(至死只依舊ㅣ니라) <小學5:3a>

<3> 只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只’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다문’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a. 세속에 샹넛말ㄴ티 흐면(只如俗說이면) <翻譯小6:5b>
b. 다문 세속의 말슴ㄴ티 흐면(只如俗說이면) <小學5:5a>

<4> 敢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敢’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敢히’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¹⁾

- (4) a. 물러오디 말며 묻디 아니커시든(不敢退^ㅎ며 不問^이어든) <翻小 3:24b~25a>
b. 敢히 물으디 아니^ㅎ며 묻디 아니커든(不敢退^ㅎ며 不問^이어든) <小學2:57a~57b>
c. 다시 움즈기디 못^ㅎ느니(不復敢舉動^ㅎ느니) <翻小7:28b>
d. 다시 敢히 움죽이디 못^ㅎ느니(不復敢舉動^ㅎ느니) <小學5:61a>
e. 다른 디 쓰기를 아니^ㅎ노라(不敢他用也^ㅎ노라) <翻小8:39b>
f. 敢히 다른 디 쓰디 아니^ㅎ노라(不敢他用也^ㅎ노라) <小學5:118a>
g. 내 닛디 못^ㅎ노라(吾 | 不敢忘也^ㅎ노라) <翻小9:103a>
h. 내 敢히 닛디 못^ㅎ노라(吾 | 不敢忘也^ㅎ노라) <小學6:96a>
i. 손을 피호디 아니^ㅎ고(不敢會賓友 | 오) <翻小10:33a>
j. 敢히 손이며 버들 피호디 못^ㅎ야(不敢會賓友^ㅎ야) <小學6:131a>

<5> 與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與’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다못’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²⁾

- (5) a. 벼슬 노pon 관디^ㅎ니와 눈 머니를 보시고(見冕者와 與瞽者^ㅎ시고) <翻小4:17b>
b. 冕[벼슬 노pon 사람의 쓰는 거시라]^ㅎ니와면 다못 눈 머니를 보시고(見冕者與瞽者^ㅎ시고) <小學3:15b>
c. 안희셔는 正憲公과 申國夫人과 ㄹ^ㄹ츄미(內則正獻公與申國夫人敎訓이) <翻小9:5a>
d. 안호로는 正獻公과 다못 申國夫人이 ㄹ^ㄹ츄미(內則正獻公與申國夫人敎訓이) <小學6:4b~5a>
e. 그 일며 못 일우미(其成與否 |) <翻小10:21b>

f. 그 일며 다뫏 묻홈은(其成與否_느) <小學6:120a>

<6> 自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自’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스스로’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³⁾

(6) a. 그 ㅎ나흔 편안호뵐 구ㅎ야(其一은 自求安逸ㅎ야) <翻譯小6:17b>

b. 그 ㅎ낫제_느 스스로 편안홈을 求ㅎ며(其一은 自求安逸ㅎ며) <小學5:16b>

c. 주신도 쯔 술와 차반 ㅁ초와(主人이 亦自備酒饌ㅎ야) <翻譯小7:17a>

d. 主人도 쯔 스스로 술 차반 ㄱ초와(主人이 亦自備酒饌ㅎ야) <小學5:50a>

e. 나저 바며 헤아려 슬퍼(日夜의 且自點檢ㅎ야) <翻譯小8:15a>

f. 나지며 밤의 아직 스스로 남남치 출화(日夜의 且自點檢ㅎ야) <小學5:94b>

g. 李氏 ㅁ슴아라 ㅎ더니(李氏自裁之ㅎ더니) <翻譯小9:94b>

h. 李氏 스스로 ㅁ슴알아 ㅎ더니(李氏自裁之ㅎ더니) <小學6:87b>

i. 내 글로 인ㅎ야셔 싱각호니(某ㅣ 因自思) <翻譯小10:27a>

j. 내 因ㅎ야 스스로 싱각호디(某ㅣ 因自思) <小學6:125b>

<7> 徒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徒’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흔갓’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a. 의관을 ㅎ야신들 종과 엇디 다ㄹ리오(簪裾徒在ㄱ들 廝養何殊ㅣ리오)
<翻譯小6:19a>

b. 의관을 흔갓 둔들 종놈과 엇디 다ㄹ리오(簪裾徒在ㄱ들 廝養何殊ㅣ리오)
<小學5:17b>

<8> 足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足’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足히’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 (8) a. 모땀 허뜨리 득일 썩롬이니라(適足爲身累 | 니라) <翻小6:24a~24b>
b. 다땀 足히 몸읏 힘음이 되느니라(適足爲身累 | 니라) <小學5:22b>
- c. 중의 마리 믿브디 아니호미 명빅흐니라(不足信也 | 明矣니라) <翻小7:22b>
d. 足히 믿엄즉디 아니홈이 분명흐니라(不足信也 | 明矣니라) <小學5:55b>
- e. 후에 나는 사름미 직조홀 성이 늑두곤 더으니는 저프디 아니호고(後生이 才性過人者는 不足畏오) <翻小8:37b>
f. 後生이 직질이 사름의게 넘은 이는 足히 두렵디 아니호고(後生이 才性過人者는 不足畏오) <小學5:115b>

<9> 惟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惟’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오직’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 (9) a. 쯔 나를 不足히 너겨 흐느다 흐니(亦惟日不足 | 라 흐니) <翻小6:31b>
b. 쯔 오직 날을 不足히 너겨 흐느다 흐니(亦惟日不足이라 흐니) <小學5:29b>
- c. 어딘 이리어든 縣令의게 가디 아닐가 저허흐야(善則惟恐不歸於令호야) <翻小7:25b>
d. 어딘 이리어든 오직 현령의게 도라가디 아닐가 저허(善則惟恐不歸於令호야) <小學5:58a>
- e. 그 불른 대로 흐느니(惟其所召 | 니) <翻小8:10b>

f. 오직 그 불으논 배니라(惟其所召 | 나라) <小學5:90b~91a>

g. 니르시논대로 조차 호리이다(惟命是從호리이다) <翻小9:59a>

h. 오직 命흐신대로 이 존조오리이다(惟命是從호리이다) <小學6:54b>

<10> 殊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殊’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즈못’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a. 주근 사름미 열구리 서거 업서디고(殊不知死者 | 形既朽滅호며) <翻小7:22a>

b. 즈못 죽은 이 얼굴이 이의 서거 업고(殊不知死者 | 形既朽滅호고) <小學5:55a>

<11> 都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都’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a. 엇디 혼 사름도 그르 地獄의 드러가(何故로 都無一人이 誤入地獄호야) <翻小7:22b>

b. 엇딘 연고로 다 혼 사름이 그르 地獄에 들어가(何故로 都無一人이 誤入地獄호야) <小學5:55b>

<12> 多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多’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만히’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a. 간활혼 아저늬게 고기 낫논 바비 드외여 스스로 슬피디 몬호야 (多爲猾吏의 所餌호야 不自省察호야) <翻小7:28a~28b>

b. 만히 간활혼 아전익게 미진 배 되여 스스로 슬피디 몬호야(多

爲猾吏所餌_하야 不自省察_하야) <小學5:60b~61a>

<13> 正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正’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正히’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 a. 맛당이 남진을 도와(正當輔佐君子_하야) <翻小7:36b>

b. 正히 맛당이 君子[君子는 남진이라]를 도와(正當輔佐君子_하야) <小學5:68a~68b>

<14> 直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直’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直히’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 a. 모로매 句句마다 궁구_하야 아라 디나가(直須句句理會過_하야) <翻小8:32b>

b. 直히 모롬이 句句마다 출화 아라 디내여(直須句句理會過_하야) <小學5:111a>

<15> 皆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皆’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15) a. 聖人의 글 뜯에 맞게 _하야(皆傳經義_하야) <翻小9:10a>

b. 다 경서 뜯의 뜯터 _하야(皆傳經義_하야) <小學6:9a>

<16> 各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各’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각각’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 a. 서르 본증을 혀니(各相援據ᄃᆞ니) <飜小9:69a>

b. 각각 서르 혀 증거ᄃᆞ니(各相援據ᄃᆞ니) <小學6:63b>

<17> 相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相’이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서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17) a. 모딘 병도 던염티 못ᄃᆞ는 주를 알와라(始知疫癘之不能相染也 | 와라)
<飜小9:74a>

b. 비르소 녀역의 能히 서르 던염티 못ᄃᆞ는 줄을 알와라(始知疫癘之不能相染也 | 와라) <小學6:68b>

c. 부조로 청백호를 니서 오고(世以清白相承ᄃᆞ고) <飜小10:34b>

d. 세세로 清白으로써 서르 닛고(世以清白相承ᄃᆞ고) <小學6:132a>

<18> 尤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尤’가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더욱’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a. 스랑호를 지극이 ᄃᆞ더니(友愛尤篤ᄃᆞ더니) <飜小9:79b>

b. 스랑함을 더욱 도타이 ᄃᆞ더니(友愛尤篤이러니) <小學6:73b>

<19> 頗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頗’가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즈뭇’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 a. 즈손은 어머시 시절을 미쳐 싱계홀 터홀 세오져 ᄃᆞ다니(子孫ᄃᆞ 冀及君時ᄃᆞ야 頗立産業基址ᄃᆞ다니) <飜小9:88b>

- b. 子孫이 어버이 시절을 미처 즈뫼 칭계홀 터홀 셀가 불아더니(子孫이 冀及君時호야 頗立産業基址호더니) <小學6:82a>

<20> 悉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悉’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 a. 프레 드리티며(悉投之于江호며) <翻小10:10a>
b. 다 江의 드리티며(悉投之于江호며) <小學6:109a>

<21> 但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但’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성상부사 ‘다몬’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1) a. 혼 빈혀에 돈 칠십만이 스니(但一釵七十萬이) <翻小10:16a>
b. 다몬 혼 빈혀에 七十萬이(但一釵七十萬이) <小學6:115a>

2.4.3 번역되지 않는 樣態副詞

<1> 可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可’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可히’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 (1) a. 의거호암직혼 후에사 니르며(可驗而後에 言호며) <翻小3:21a>
b. 可히 중험호암즉혼 후에 닐으며(可驗而後에 言호며) <小學2:54a>

c. 욕심을 방종히 호미 몬홀 거시며(欲不可從호며) <翻小4:3a>
d. 욕심을 可히 방종히 몬홀 거시며(欲不可從이며) <小學3:2b>

- e. 歷歷히 혀여 다 괴디홀 거시니라(歷歷皆可記니라) <翻小6:23b>
- f. 歷歷히 다 可히 괴록홀 디니라(歷歷皆可記니라) <小學5:22a>
- g. 삼가디 아니티 몬홀 거시니라(不可不愼이니라) <翻小7:20b>
- h. 可히 삼가디 아니티 몬홀 거시니라(不可不愼이니라) <小學5:53b>
- i. 엇디 넷 사르미게 몬 미츠리오(何古人之不可及哉리오) <翻小8:24b>
- j. 엇디 넷 사름의게 可히 밋디 몬호리오(何古人之不可及哉리오) <小學5:103b>
- k. 가디 몬홀 거시라(不可行也 | 나라) <翻小9:50a>
- l. 可히 가디 몬홀 거시니라(不可行也 | 나라) <小學6:45b>
- m. 호디 아니홀 거시니(不可行也 | 니) <翻小10:10a>
- n. 可히 行티 몬홀 거시라(不可行也 | 라) <小學6:109b>

<2> 若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若’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만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 (2) a. 님금 신하 義와 아비 아드릭 親함과(若夫君臣之義와 父子之親과) <翻小3:47b>
- b. 만일 님금 신하의 義와 아비 아들의 親함과(若夫君臣之義와 父子之親과) <小學2:77b>
- c. 스리에 유해호미 업거든(若無害理어든) <翻小7:3a>
- d. 만일 스리에 해로움이 업거든(若無害理어든) <小學5:37a>
- e. 죽은 나래 창애 나몬 곡식이 이시며(若死之日에 不使廩有餘粟호며) <翻小8:20a>
- f. 만일 죽은 날애 호여곰 창애 남은 곡석이 이시며(若死之日에 不使廩有餘粟호며) <小學5:99b>

<3> 能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能’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能히’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 (3) a. 그 모를 공경티 아니흐면(不能敬其身이면) <翻小4:1b>
 b. 能히 그 몸을 공경티 아니흐면(不能敬其身이면) <小學3:1b>
- c. 험하고 망령드외면 턴성을 다스리디 못흐리니(險躁則不能理性이니)
 <翻小6:17a>
 d. 험하고 조급흐면 能히 性を 다스리디 못흐리니라(險躁則不能理性이니
 라) <小學5:15b>
- e. 내 므슴식장 다 흐요미니(能盡吾之心이니) <翻小7:24a>
 f. 能히 내 므슴을 다 흐욤이니(能盡吾之心이니) <小學5:57a>
- g. 비록 순일티 못흐나(雖不能淳이나) <翻小8:29b>
 h. 비록 能히 순전티 못흐나(雖不能淳이나) <小學5:108a>
- i. 包ㅣ 말이다 못흐야(包不能止흐야) <翻小9:23a>
 j. 包ㅣ 能히 그치누르디 못흐야(包ㅣ 不能止흐야) <小學6:20b>
- k. 필티 못흐시느니(不能必이시니) <翻小10:21b>
 l. 能히 괴필티 못흐시리니(不能必이시니) <小學6:120a>

<4> 必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必’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반드시’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¹⁾

- (4) a. 비록 아람도이 겨신 사히라도 레도흐시며(雖褻이나 必以貌흐시며)
 <翻小4:17b>
 b. 비록 스스로운 디나 반드시 써 네모흐시며(雖褻이나 必以貌흐시며)
 <小學3:15b>

- c. 제 막스매 너규디 나논 아히어니(其心에 必曰我애 爲孩童이어니) <翻小6:11b>
- d. 그 막음애 반드시 곶오디 내 아히 되엿거니(其心에 必曰我爲孩童이어니) <小學5:10b>
- e. 모로매 내 집두곤 더으니로 홀 디니(必須勝吾家者ㅣ니) <翻小7:34a>
- f. 반드시 모롬애 내 집두곤 나온 이로 홀 디니(必須勝吾家者ㅣ니) <小學5:66a>
- g. 칙을 더퍼 정제히 혼 후에사(必待卷束整齊然後에사) <翻小8:39a>
- h. 반드시 막라 못거 整齊함을 기들온 후에(必待卷束整齊然後에) <小學5:117a>
- i. 뭇 브려 홀 받고 셔셔(必下馬端笏立호야) <翻小9:105a>
- j. 반드시 뭇 브려 笏 받고 셔셔(必下馬端笏立호야) <小學6:97a>
- k. 조코 만케 호며(必精豐호며) <翻小10:14b>
- l. 반드시 精호고 만케 호며(必精豐호며) <小學6:113b>

<5> 得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得’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시러’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²⁾

- (5) a. 귀에 드룬 분이언덩(耳可得聞이언덩) <翻小6:13a>
 b. 귀에 可히 시러곰 드룬 쏘이언덩(耳可得聞이언덩) <小學5:11b>
- c. 죽전호야 호디 말오(毋得專行호고) <翻小7:1a>
 d. 시러곰 죽전호야 호디 말고(毋得專行호고) <小學5:35a>
- e. 니러나모로 히여듀미 업서(得起故로 無損敗호야) <翻小8:39a>
 f. 시러곰 니러나논 故로 히여디미 업스니(得起故로 無損敗호니) <小學5:117a>
- g. 나리 다으도록 쉬들 못호야(盡日不得息호야) <翻小9:99a>

h. 날이 다으도록 시러곰 쉬디 못ᄃ야(盡日不得息ᄃ야) <小學6:92a>

<6> 令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令’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ᄃ여곰’ 또는 ‘히여곰’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³⁾

(6) a. 글지시란 아니케 흘 디니(不得令作文字ㅣ니라) <翻小6:6a>

b. 시러곰 ᄃ여곰 글지이를 ᄃ게 아니흘 디니라(不得令作文字ㅣ니라)
<小學5:6a>

c. 츠마 너히들ᄃ로 가스멸오 귀ᄃ 즐거운 이를 누리게 ᄃ려(忍令若曹로
享富貴之樂也아) <翻小7:48a>

d. 츠마 너히 물이로 히여곰 富貴의 즐거움을 누리게 ᄃ라(忍令若曹로
享富貴之樂也아) <小學5:79a>

e. 오직 정히 니기 닐글 디니(只要令精熟이니) <翻小8:35a>

f. 오직 히여곰 精코 닌오물 구흘 디니(只要令精熟이니) <小學5:113a>

g. 萬石君으로 아디 못게 호믈(不敢令萬石君知之로) <翻小9:85b>

h. 敢히 萬石君으로 히여곰 알에 아니ᄃ야(不敢令萬石君知之ᄃ야) <小學
6:79b>

i. 인ᄃ야 글 빅호라 권ᄃ니(因勸令學ᄃ야) <翻小10:6b>

j. 因ᄃ야 勸ᄃ야 히여곰 글 빅호라 ᄃ야(因勸令學ᄃ야) <小學6:106b>

<7> 宜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宜’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맞당히’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7) a. 기피 괴디흘 디니라(宜深誌之ᄃ라) <翻小6:17b>

b. 맞당히 깃히 괴디흘 디니라(宜深誌之니라) <小學5:16a>

- c. 머리 네 녀 ㄴ새 내터(宜擯四裔호야) <翻小7:13a>
- d. 맞당히 네 녀 먼 덕 내터(宜擯四裔호야) <小學5:46a>
- e. 엇디 혼자 사라 이시료(豈宜獨生이리오) <翻小9:65a>
- f. 엇디 맞당히 혼자 사라시리오(豈宜獨生이리오) <小學6:60a>
- g. 공이 저기 늑 ㄴ티 호라(公이 宜少從衆호라) <翻小10:30b>
- h. 공이 맞당히 적이 늑을 조츠라(公이 宜少從衆호라) <小學6:128b>

<8> 或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或’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或’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 (8) a. 혼 가지나 반 ㄴ리나 비록 어더도(一資半級을 雖或得之라두) <翻小6:20a>
- b. 혼 가즈와 半 품을 비록 或 어더도(一資半級을 雖或得之라두) <小學5:18b>
- c. 초상에 대쇼렴도 몬호야셔(或初喪未斂에) <翻小7:17a>
- d. 或 初喪에 대쇼렴도 몬호여실 제(或初喪未斂에) <小學5:50a>
- e. 史記는 日일에 혼 권이며 반 권 이상을 닐거샤(史書는 每日에 須讀取一卷호며 或半卷以上호야샤) <翻小8:35a>
- f. 史記는 每日에 모롬이 혼 권이어나 或 반 권으로써 우흘 녀에샤(史書는 每日에 須讀取一卷或半卷以上이라샤) <小學5:113b>
- g. 골오 아니호는 주리 이시며(或有不均호며) <翻小9:97a>
- h. 或 고로 아니홈이 이시며(或有不均호며) <小學6:90a>
- i. 그리웁 아니호여든(苟或不然이어든) <翻小10:33a>
- j. 진실로 或 그리 아니호면(苟或不然이면) <小學6:131a>

<9> 當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當’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맛당히’ 또는 ‘맛당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 (9) a. 너희들히 나를 어엿비 너겨(爾曹當憫我 訶야) <翻譯小6:27a>
 b. 너희 물이 맛당히 날을 민망히 너겨(爾曹 當憫我 訶야) <小學5:25a>
 c. 정성도인 쓰드로 감동케 홀 디니(當以誠意로 動之니) <翻譯小7:25a>
 d. 맛당이 정성된 뜰으로써 감동케 홀 디니(當以誠意로 動之니) <小學5:57b>
 e. 나는 후에 즈식이 이시려니쑈나(我 後當有子어닛쑈녀) <翻譯小9:71b>
 f. 나는 후에 맛당히 즈식이 이시려니쑈녀(我 後當有子어닛쑈녀) <小學6:66a>
 g. 이러특시 訶리어니와(當如是어니와) <翻譯小10:21b>
 h. 맛당히 이러특시 홀 거시니(當如是니) <小學6:120a>

<10> 使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使’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히여곰’ 또는 ‘히여곰’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 (10) a. 죄를 더으게 마를 디어다(勿使增罪戾 1 어다) <翻譯小6:27a>
 b. 히여곰 죄를 더으게 말을 디어다(勿使增罪戾 1 어다) <小學5:25a>
 c. 진실로 그 訶는 이리 쉽디 아니호 주를 보시면(苟使見其爲而不易則) <翻譯小7:4a>
 d. 진실로 히여곰 그 호되 쉽디 못호 줄을 보시면(苟使見其爲而不易則) <小學5:37b>
 e. 다시 모매 드려 오게 코져 홀 쑈르미니(使反復入身來니) <翻譯小8:5a~5b>
 f. 히여곰 도로 몸애 드려 오게 콸다 흠이니(使反復入身來니) <小學5:86a>

- g. 들마다 글 지서 ㄷ토게 호미(而月使之爭이) <翻小9:16b>
 h. 들마다 ㅎ여곰 ㄷ토게 홈이[글지이로 결오단 말이라](而月使之爭이)
 <小學6:14b>

<11> 當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當’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반드시’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1) a. 먼저 그 사회와 며느리의 텃성과 흥덕과(當先察其婿與婦之性行과)
 <翻小7:32a>
 b. 반드시 먼저 그 사회와 다뭇 며느리의 텃성과 흥실과(當先察其婿與婦之性行과) <小學5:64a>

<12> 猶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猶’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오히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 (12) a. 들기 고기깅을 머거늘(猶食雞臠이어늘) <翻小7:15a>
 b. 오히려 닭깅을 먹거늘(猶食雞臠이어늘) <小學5:48a>
 c. 혼디 살며 음식글 혼가지로 ㅎ야(猶同居共爨ㅎ야) <翻小9:108a>
 d. 오히려 혼디 살며 혼가지로 밥 지어(猶同居共爨ㅎ야) <小學6:100b>

<13> 須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須’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모름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⁹⁾

- (13) a. 잠깐 먹고(暫須食飲이오) <翻小7:18a>
 b. 잠깐 모름이 먹으며 마슈디(暫須食飲호디) <小學5:51a>

<14> 凡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凡’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물읏’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4) a. 벼슬ᄃᆞᆫ엿는 사르미 빗 다른 사르물(當官者 | 凡異色人을) <翻譯小 7:27b>
b. 벼슬을 當ᄃᆞᆫ연는 이 물읏 빗 다른 사름을(當官者 | 凡異色人을) <小學 5:60a>
c. ᄃᆞᆫ덕을 모로매 독실코 공경ᄃᆞᆫ며(凡行을 必篤敬ᄃᆞᆫ며) <翻譯小 8:16a>
d. 물읏 ᄃᆞᆫ실을 반ᄃᆞᆫ시 독실ᄃᆞᆫ고 공경ᄃᆞᆫ며(凡行을 必篤敬ᄃᆞᆫ며) <小學 5:96a>

<15> 要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要’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모름이’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5) a. ᄃᆞᆫ스물 조케 ᄃᆞᆫ며 속절업스 이를 적게 호모로 옷드물 사물 거시니라 (要以淸心省事로 爲本이나라) <翻譯小 7:27b>
b. 모름이 ᄃᆞᆫ을 몹게 ᄃᆞᆫ며 일을 적게 흠으로써 근본을 삼을 디니라 (要以淸心省事로 爲本이나라) <小學 5:60a>

<16> 固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固’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진실로’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6) a. 친ᄃᆞᆫ며 소호미 업스니라 진실로 조상 ㅼᄃᆞᆫ데(固無親疎也 | 니라 苟祖宗之意에) <翻譯小 7:49a>
b. 진실로 親ᄃᆞᆫ며 疎ᄃᆞᆫ함이 업스니 진실로 조상 ㅼᄃᆞᆫ에(固無親疎也 | 니 苟

<17> 克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克’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능히’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7) a. 저근덜 스이예도 싱각ᄃᆡ여 저허 조심ᄃᆡ야 스식으로 가져 이시라(造次克念ᄃᆡ야 戰兢自持ᄃᆡ라) <翻譯小8:11b>
b. 저근덜 즘음에도 능히 스럼ᄃᆡ야 저허 조심ᄃᆡ야 스스로 자바시라(造次克念ᄃᆡ야 戰兢自持ᄃᆡ라) <小學5:91b>

<18> 良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良’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진실로’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8) a. 일로 그러ᄃᆡ니라(良由是耳니라) <翻譯小8:29b>
b. 진실로 일로 말미암애니라(良由是耳니라) <小學5:108a>

<19> 尙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尙’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오히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⁰⁾

- (19) a. 내종내 디녀 사로려 ᄃᆡ더니(尙欲保終이온) <翻譯小9:63a>
b. 오히려 내종을 보전코져 ᄃᆡ거든(尙欲保終이어든) <小學6:58a>

<20> 應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應’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응당히’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 a. 令長 ㅅㅅ스ㄹ ㅎ려니와(應得令長이어니와) <翻小10:11b>

b. 웅당히 ㅅ이며 長[적은 고을 원이라]은 어드려니와(應得令長이어니와) <小學6:110b>

<21> 苟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苟’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양태부사 ‘진실로’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 a. 그리웃 아니ㅎ여든(苟或不然이어든) <翻小10:33a>

b. 진실로 或 그리 아니ㅎ면(苟或不然이면) <小學6:131a>

2.4.4 번역되지 않는 接續副詞

<1> 則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則’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접속부사 ‘곧’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1) a. 윈 녀그되나 올흔 녀그되나 물러서 기들을 디니라(則左右屏而待니라) <翻小3:30a>

b. 곧 윈 녀키며 올흔 녀크로 켜여서 기들을 디니라(則左右屏而待니라) <小學2:62a>

c. 모로매 양죽틀 고타 비록 바미라두(則必變ㅎ야 雖夜ㅣ나) <翻小4:18a>

d. 곧 반드시 변식ㅎ야 비록 밤이나(則必變ㅎ야 雖夜ㅣ나) <小學3:16a>

e. 나논 믿디 아니호리라(則吾不信也호리라) <翻小6:30b>

f. 곧 나논 믿디 아니호리라(則吾不信也호리라) <小學5:27b>

g. 술와 차반 가져 가 위로ㅎ거든(則齋酒饌ㅎ야 往勞之어든) <翻小7:17a>

- h. 곧 술과 차반 가지고 가 위로흐거든(則齋酒饌往勞之어든) <小學5:50a>
- i. 밋디 못흐야도 쏘 어딘 일후를 일티 아니흐리라(不及則亦不失於令名흐리라) <飜小8:3b~4a>
- j. 밋디 못흐야도 곧 쏘 어딘 일홈을 일티 아니흐니라(不及則亦不失於令名흐리라) <小學5:84b>

<2> 亦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亦’이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접속부사 ‘또’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²⁾

- (2) a. ㄹㄹ쳐도 어디디 못흐느닌 어린 것 아녀 엇더니리오(敎亦不善이 非愚而何 | 리오) <飜小6:29a>
- b. ㄹㄹ쳐도 쏘 어디디 못홈이 어린이 아리오 ㅄ섯고(敎亦不善이 非愚而何오) <小學5:26b>
- c. 정시니 흐러디여(神亦飄散흐야) <飜小7:22a>
- d. 정신이 쏘 느라 흐터디니(神亦飄散흐니) <小學5:55a>
- e. 구흐면 ㅄ스 거슬 얻디 못흐며(亦何求不得이며) <飜小8:20a>
- f. 쏘 ㅄ어슬 求흐여 얻디 못흐며(亦何求不得이며) <小學5:99a>
- g. 나도 이 말슴 닐온 줄 업소니(臣亦無此言호니) <飜小9:46b>
- h. 臣도 쏘 이 말슴이 업소오니(臣亦無此言호니) <小學6:42b>
- i. 정다이 안자 불덩 곳고(亦端坐拱手흐며) <飜小10:13a>
- j. 쏘 단정히 안자 풀덩 고즈며(亦端坐拱手흐며) <小學6:112b>

<3> 及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及’이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접속부사 ‘및’ 또는 ‘밋’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³⁾

- (3) a. 가무네 레법이 엇던고 햏야 슬피고(及家法何如ㅣ오) <飜小7:32a>
 b. 밍 집읏 法이 엇더홈을 슬피고(及家法何如ㅣ오) <小學5:64a>
- c. 五經읏 글뜻과 성현의 성과 일후미 잇거든(有五經詞義와 及聖賢姓名 이어든) <飜小8:39b>
 d. 五經읏 말와 밍 聖賢의 姓名이 잇거든(有五經詞義와 及聖賢姓名 이어 든) <小學5:118a>
- e. 慶과 모든 아들이 里門의 드러논(慶及諸子ㅣ 入里門햏야) <飜小 9:87a>
 f. 慶과 밋 모든 아들이 里門의 들어(慶及諸子ㅣ 入里門햏야) <小學 6:80b>
- g. 只솔히 이실 제도(及在鄉黨햏야) <飜小10:3a>
 h. 밍 鄉黨의 이셔(及在鄉黨햏야) <小學6:103a>

<4> 且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且’가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접속부사 ‘또’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⁴⁾

- (4) a. 효도롭고 엄엄히 햏더시니(孝且嚴이러시니) <飜小7:41a>
 b. 효도롭고 또 嚴히 햏더시니(孝且嚴이러시니) <小學5:72b>
- c. 닭 울어든 니러 ㄴ비출 온화히 햏며(鷄鳴而起햏야 且溫顏色햏며) <飜小9:93a>
 d. 닭 울어든 니러 또 ㄴ빗출 온화히 햏며(鷄鳴而起햏야 且溫顏色햏며) <小學6:86a>

<5> 又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又’가 『飜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접속부사 ‘또’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a. ㅎ돌며 부터의 이리 둥국에 아니 와신 저네(又況佛法이 未入中國之前에) <翻小7:22b>
 b. 또 ㅎ돌며 부터의 법이 中國에 들어오디 아녀신 전에(又況佛法이 未入中國之前에) <小學5:55a~55b>

<6> 然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然’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접속부사 ‘그러나’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⁵⁾

- (6) a. 내 조상으로 보건댄 ㅎ가짓 ㅈ소니라(然ㅣ나 吾祖宗으로 視之則均是子孫ㅣ라) <翻小7:49a>
 b. 그러나 우리 조상이 보시면 ㅎ가짓 이 子孫이라(然吾祖宗이 視之則均是子孫이라) <小學5:80a>
 c. 저른 님금 도아 인 그릇 맞다슈른(然至其輔少主守成ㅎ얀) <翻小9:40b>
 d. 그러나 그 점은 님금 도와 인 것 덕킴에 니르러논(然이나 至其輔少主守成ㅎ얀) <小學6:37a>

<7> 故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故’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접속부사 ‘그러므로’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7) a. 그 ㅈ을 얼일 제 티장ㅎ야(故로 以女로 妻之ㅎ식) <翻小9:58b>
 b. 그러므로 ㅈ로써 안해 삼으니(故로 以女妻之ㅎ니) <小學6:54a>

<8> 卽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卽’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접속부사 ‘곧’으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⁶⁾

- (8) a. 이리 호미 막숨 자보물 빅호미니라(卽此 | 是學이니라) <翻小10:24a>
 b. 곧 이거시 이 學이니라(卽此 | 是學이니라) <小學6:122b>

2.4.5 번역되지 않는 副詞語

<1> 斯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斯’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부사어 ‘이에’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⁷⁾

- (1) a. 막대 디픈 사르미 나거든 날 디니라(杖者 | 出이어든 斯出矣니라)
 <翻小3:33b>
 b. 막대 딛프니 나거든 이에 나가더시다(杖者 | 出이어든 斯出矣러시다)
 <小學2:65a>
 c. 늦비출 단정히 호매 믿부메 갓가이 흐며(正顏色애 斯近信矣며) <翻小4:7a>
 d. 늦빚출 正히 흠애 이에 믿븜애 갓가이 흐며(正顏色애 斯近信矣며)
 <小學3:6a>

<2> 以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以’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부사어 ‘써’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⁸⁾

- (2) a. 그 올흔 이를 히을 디니라(以行其義니라) <翻小4:8a>
 b. 써 그 맛당흔 일을 行흘 디니라(以行其義니라) <小學3:7b>
 c. 쯔 가히 孟子 곧흐리라(亦可以如孟子矣리라) <翻小6:10a>
 d. 쯔 可히 써 孟子 곧흐리라(亦可以如孟子矣리라) <小學5:9b>
 e. 반드시 몬져 어버시를 머기느니(必先以食父母흐느니) <翻小7:43a>
 f. 반드시 몬져 써 어버이를 머기느니(必先以食父母흐느니) <小學5:74b>

- g. 부형이 글직조로 그 즈대를 귀걸하고(父兄이 以文藝로 令其子弟하고)
<翻小8:24b>
- h. 父兄이 글직조로써 그 子弟를 시기고(父兄이 以文藝로 令其子弟하고)
<小學5:103b>
- i. 모로매 理 이기에 하며 그 스승의 말을 미더(必以理勝하며 信其師說하야) <翻小9:10a>
- j. 반드시 써 理 勝케 하며 그 스승의 말을 믿어(必以理勝하며 信其師說하야) <小學6:9a>
- k. 금 열 근을 꾸며 震을 주어늘(懷金十斤하야 以遺震호대) <翻小10:5a>
- l. 金 열 근을 품어 써 震을 준대(懷金十斤하야 以遺震호대) <小學6:104b>

<3> 於是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於是’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부사어 ‘이에’ 또는 ‘이에’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⁹⁾

- (3) a. 상감 주신 거시며 록 툃 거슬(於是에 恩例俸賜를) <翻小7:49b>
- b. 이에 은혜엿 별례엿 것과 녹봉으로 주신 거슬(於是에 恩例俸賜를)
<小學5:80b>
- c. 令女ㅣ ㅁ마니 자는 방의 드러가(令女ㅣ 於是에 竊入寢室하야) <翻小9:62a>
- d. 令女ㅣ 이에 ㅁ마니 자는 방의 들어가(令女ㅣ 於是에 竊入寢室하야)
<小學6:57a>

<4> 是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是’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부사어 ‘이에’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a. 글 비호기를 모로매 일과호는 법을 엄정히 세오(學業則須是嚴立課程이오) <翻小8:34b>
 b. 글 비호는 공부는 모름이 이에 일과호는 법을 嚴히 세고(學業則須是嚴立課程이오) <小學5:113a>

<5> 共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共’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부사어 ‘혼가지로’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 a. 宣과 차근 술의를 곁와 쓰서(與宣오로 共挽鹿車호야) <翻小9:59b>
 b. 宣으로 더불어 혼가지로 적은 술위를 쓰어(與宣오로 共挽鹿車호야) <小學6:54b>

<6> 自此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自此’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부사어 ‘일로브터’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 a. 말와 일와 혼가지오(自此로 言行이 一致며) <翻小10:25b>
 b. 일로브터 말슴과 횡실이 혼가지라(自此로 言行이 一致라) <小學6:124a>

2.5 번역되지 않는 節

<1> 有人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有人’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節 ‘사름이 이시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a. 와 닐오되 가난호야 사디 못호더라 호면(有人이 來云호되 貧乏不能存이라 호면) <翻小9:50b>
 b. 사름이 이서 와 닐오되 가난호야 군핍호야 能히 잇디 못호더라 호면

(有人이 來云貧乏不能存이라 ्ह면) <小學6:46b>

3.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지 않는 경우
두 문헌을 대비해 보면 동일 원문의 漢字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지만 그 예들은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는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代名詞, 冠形詞, 副詞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1 번역되지 않는 代名詞

<1> 諸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諸’가 『翻譯小學』에서 대명사 ‘이’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a. 이 썩와 늑뭇과를 보아 닛디 말라(視諸衿輦호라) <翻譯小3:13b>
b. 썩와 늑뭇출 보라(視諸衿輦호라) <小學2:47a>

3.2 번역되지 않는 冠形詞

<1> 其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其’가 『翻譯小學』에서 관형사 ‘그’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a. 둥간호 사르미 성이 그 스랑호며 앓쳐로미(若中人之性이 其愛惡ㅣ)
<翻譯小7:3a>
b. 만일 둥간호 사람의 性이 스랑호며 아쳐홈이(若中人之性이 其愛惡ㅣ) <小學5:36b~37a>

3.3 번역되지 않는 副詞⁵⁰⁾

<1> 則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則’이 『翻譯小學』에서 접속부사 ‘곧’으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a. 사름미 비록 지그기 어려도 늙 외다 호몬 곧 불기호고(人雖至愚 | 나 責人則明호고) <翻小8:13b>
b. 사름이 비록 지극히 어린이라도 사름 외다 호기는 밝고(人雖至愚 | 라 도 責人則明호고) <小學5:93a>

<2> 卽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卽’이 『翻譯小學』에서 시간부사 ‘즉재’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a. 즉재 그날 고을 홀 버리고 지브 오니(卽日棄官歸家호대) <翻小9:31a>
b. 그날 벼슬 버리고 집의 도라오니(卽日棄官歸家호니) <小學6:27b~28a>
>

<3> 須

동일 원문의 번역인 다음 예문들을 대비해 보면 原文의 ‘須’가 『翻譯小學』에서 양태부사 ‘모로매’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a. 모로매 돈닐 칠십만을 바도려 호늬이다(須七十萬錢이러이다) <翻小10:15b~16a>
b. 七十萬 돈을 바도려 호덩이다(須七十萬錢이러이다) <小學6:114b~115a>

4. 결론

『小學』을 底本으로 하여 70년 차이를 두고 두 번 언해된 『翻譯小學』과 『小學諺解』는 동일 原文을 바라보는 諺解者의 관점에 따라 언해하는 방식

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문장 단위로 살펴봤을 때 『翻譯小學』은 대체적으로 동일 原文의 모든 漢字를 번역하는 것은 아닌 것에 비해 『小學諺解』는 대체적으로 동일 原文의 모든 漢字를 번역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는 경우가 『翻譯小學』에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는 경우와 『翻譯小學』에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경우를 각각 名詞類, 動詞類, 冠形詞, 副詞類, 節과 代名詞, 冠形詞, 副詞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品詞別 類型		項目數 (總 횃수)	總 項目數 (總 횃수)	合計 (總 횃수)
『翻譯小學』에 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 서는 번역되는 경우	名詞類	名詞	12(12)	20 (32)	128 (849)
		代名詞	3(3)		
		名詞句	4(4)		
		依存名詞	1(13)		
	動詞類	動作動詞	18(63)	29 (74)	
		動作動詞句	6(6)		
		狀態動詞	5(5)		
	冠形詞		3(113)	3(113)	
	副詞類	時間副詞	18(63)	75 (630)	
		性狀副詞	21(64)		
		樣態副詞	21(215)		
接續副詞		9(65)			
副詞語		6(223)			
節		1(1)	1(1)		
『翻譯小學』에 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 서는 번역되지 않는 경우	代名詞		1(1)	5(5)	5(5)
	冠形詞		1(1)		
	副詞		3(3)		

<표2 『翻譯小學』과 『小學諺解』의 번역되지 않는 부분의 對比>

<표2>의 결과를 볼 때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는 경우가 『翻譯小學』에서 번역되고 『小學諺解』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

는 경우 項目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번역되지 않는 항목은 副詞類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지 않는 항목은 動詞類이다. 출현 횟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副詞類 중 副詞語가 가장 많이 번역되지 않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冠形詞가 많이 번역되지 않고 있다. 출현 횟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副詞類와 冠形詞가 가장 많이 번역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翻譯小學』에서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諺解』에서 번역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諺解者가 동일 原文을 대하는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翻譯小學』은 대체로 意譯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小學諺解』는 동일 原文의 漢字에 충실하면서 이해를 하는 직역의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역을 할 때 불필요한 副詞類나 冠形詞의 생략이 빈번히 발생하여 『翻譯小學』에서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반대로 『小學諺解』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부분이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注

- 1) 본고에서는 名詞類를 名詞, 代名詞, 名詞句, 依存名詞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 2)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13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로 1개씩만 기재하였다.
- 3) 본고에서는 動詞類를 動作動詞, 動作動詞句, 狀態動詞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현대국어에서 말하는 동사와 형용사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사를 동작동사로, 형용사를 상태동사로 보기로 한다. 그리고 주술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두 단어 이상이 통합된 것 즉, 두 개의 동사가 연속으로 통합되거나 부사어와 동사, 목적어와 동사, 보어와 동사로 통합된 것을 동작동사구로 보기로 한다.
- 4)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5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로 1개씩만 기재하였다.
- 5)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25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로 1개씩만 기재하였다. 동일 원문의 ‘與’는 번역되지 않는 동작동사들 중에서 출현 횟수가 가장 많다.
- 6)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4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로 1개씩만 기재하였다.
- 7)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8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로 1개씩만 기재하였다.
- 8)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21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로 1개씩만 기재하였다.
- 9)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97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로 1개씩만 기재하였다.
- 10)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13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로 1개씩만 기재하였다.
- 11)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3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1개의 예만 기재하였다.
- 12) 본고에서는 副詞類를 時間副詞, 性狀副詞, 樣態副詞, 接續副詞, 副詞語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또는 성질을 한정하여 꾸미는 성상부사, 문장의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믿음 또는 판단을 표현하는 양태부사,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며 주는 접속부사,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성분으로 부사와 부사의 구실을 하는 단어나 어절, 그리고 체언에 부사격조사가 붙거나 부사성 의존 명사구를 부사어의 판단 기준으로 보고 분류하였다.
- 13)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3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 14)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12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 15)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26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 16)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8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 17)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5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 18)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7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 19)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2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1개의 예만 기재하였다.
- 20)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4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 21) 이와 같은 예문들은 총 18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 22)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5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23)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23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24)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4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25)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5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26)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2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1개의 예만 기재하였다.
 27)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3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28)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52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29)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11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30)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39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31)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23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32)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23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33)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7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34)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5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35)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11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36)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15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37)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22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38)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3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39)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2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1개의 예만 기재하였다.
 40)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2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1개의 예만 기재하였다.
 41)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12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42)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16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43)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25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44)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6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45)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4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46)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2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1개의 예만 기재하였다.
 47)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4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48)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218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翻譯小學』에서
 는 번역되지 않고 『小學診解』에서 번역되는 동일 原文의 漢字 중 가장 많이 번역되지 않는다.
 49) 이 와 같은 예문들은 총 3회 나타나는데 본고에서는 권별 1개씩만 기재하였다.
 50) 『翻譯小學』에서 번역되고 『小學診解』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副詞의 예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
 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參考文獻

- 權和淑 2003. 「『月印釋譜』 卷 15와 『法華經診解』의 比較 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權和淑 2010. 「『月印釋譜』와 『法華經診解』의 國語學的 比較 研究」 韓國外國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김한숙 1988. 「『翻譯小學』과 『小學診解』의 比較 研究」 『돈암어문학』 Vol.-No.1.
 南星祐 2007. 『국어사 연구와 자료』 태학사.
 南星祐 2007. 『中世國語 文獻의 翻譯 研究』 제이앤씨.
 安秉禧 1973. 中世國語 研究資料의 性格에 대한 研究 - 翻譯樣式을 중심으로 하여 - 『語學研究』 Vol.9 No.1.
 이기문 1960. 「소학언해에 대하여」 『한글』 Vol.-No127.
 이효인 2000. 「『翻譯小學』과 『小學診解』의 비교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혜린 2009.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구문 번역 양상 연구」 - 한문 원문의 'V1V2' 구성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허재영 1998.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비교 연구」 『국어교육』 Vol.-No.97.
 翻譯小學(影印本) 卷 3, 4, 6, 7, 8, 9, 10
 小學診解(影印本) 卷 2, 3, 5, 6
 南廣祐 1997. 『教學古語辭典』 教學社

**Analysis on translation patterns between
《翻譯小學(Beonyeok-Sohak)》 and 《小學諺解(Sohak-Eonhae)》
- Focusing on the parts that are not translated -**

JO Hyunjin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University of Niigata Prefectur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eneral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In this paper, out of the different translations of 《翻譯小學(Beonyeok-Sohak)》 and 《小學諺解(Sohak-Eonhae)》, the parts in the original text that have not been translated are compared.

Overwhelming results show that the case in which the original text was translated in 《小學諺解(Sohak-Eonhae)》 but not in 《翻譯小學(Beonyeok-Sohak)》 was found much more than the other case in which the original text was translated in 《翻譯小學(Beonyeok-Sohak)》 but not in 《小學諺解(Sohak-Eonhae)》.

When reviewed in more detail, in the case in which the original text was translated in 《小學諺解(Sohak-Eonhae)》 but not in 《翻譯小學(Beonyeok-Sohak)》, the least translated item in terms of word class was adverbs and their kinds and the second least was verbs and their kinds. When reviewed in terms of the number of appearance (frequency), adverbial phrases out of adverbs and their kinds were not translated the most, followed by determiners.

In the case of 《翻譯小學(Beonyeok-Sohak)》, translations were mostly liberal but in the case of 《小學諺解(Sohak-Eonhae)》, translations were mostly literal, sticking to the meaning of the original text in Chinese characters. For this reason, when translation was made liberal, unnecessary adverbs and their kinds or determiners were often omitted. This is why many parts were not translated in 《翻譯小學

(Beonyeok-Sohak)》 but on the contrary, it appears that most of the parts were translated in 《小學諺解(Sohak-Eonhae)》.

Key words : 翻譯小學(Beonyeok-Sohak), 小學諺解(Sohak-Eonhae), translation(翻譯), translation pattern(翻譯 樣相), not translated parts